

기획논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의 개발

이종원* · 성정원**

The Development and Content of Korean Geography - An Inquiry Approach

Jongwon Lee* · Jeongwon Seong**

요약: 본 연구의 목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정된 한국지리 탐구의 방향과 내용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탐구는 쟁점과 이슈에 초점을 두고, 지리탐구를 강조하며, 진로와 실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한국지리 탐구는 총 5개 대단원 및 15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에 비해 약 46% 정도 축소된 수준이다.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공간정보 및 야외조사를 활용한 탐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1단원을 통해 습득한 지리탐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 상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과 다른 지역의 관계(2단원),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들이 당면한 문제(3단원),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의 변화와 자연재해(4단원),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이슈(5단원)를 각각 조사한다.

주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 탐구, 진로선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e direction and content system of the revised Korean Geography, which is ‘Korean Geography: An Inquiry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Geography: An Inquiry Approach was designed to focus on issues and problems, inquiry-based learning, and career development and real-life experiences. Korean Geography: An Inquiry Approach consists of a total of 5 units and 15 achievement standards, which is reduced by about 46% compared to the current Korean Geography. Korean Geography: An Inquiry Approach is characterized by inquiry using spatial data and geographical fieldwork. Based on the geographical inquiry skills acquired through unit 1, student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oneself and other regions through the consumption of products in daily life (unit 2), problems faced by different parts in the context of concentr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local extinction (unit 3),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development and natural disasters (Unit 4), and geopolitical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urrounding areas (Unit 5).

Key word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Geography - An Inquiry Approach, inquiry, career development

I. 서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사회과에 ‘한국

지리 탐구’라는 새로운 과목이 생겨났다. 기존에 ‘한국지리’라는 명칭의 과목이 존재했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일반선택 과목에서 진로선택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jongwonlee@ewha.ac.kr

** 수원외국어고등학교 교사(Geography Teacher, Suwon Academy of World Languages), seonwooclady@korea.kr

과목으로 과목의 성격이 변화하였고, 과목의 명칭에서 드러나듯 ‘탐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변화의 요구가 강해 비교적 많이 변화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개정된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개정 방향과 내용체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해당 내용은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더불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한국지리 탐구가 개발된 배경을 함께 소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교육부의 자료(교육부, 2021a, 2021b),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분석, 그리고 현행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물론, 제기된 배경이나 불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좋은 교육과정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신뢰할 만한 자료는 될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설정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분석과 지리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3장에서 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2025년에 한국지리 탐구 과목이 학교에서 안착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과 한국지리 탐구

1.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계승하고 있다.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현재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삶이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나아가 현재의 교육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

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주목한 변화와 과제는 사회 환경, 학습자, 교육환경의 세 측면으로 구분된다(표 1).

우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및 사회변화,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등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소양교육’을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제안하였다. 둘째는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디지털 친화적인 학습자의 성향 변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은 교육환경의 변화이다. 지식과 정보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단편적 지식의 습득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삶의 맥락에서 적용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이 중요해졌으며, 나아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개념 학습과 탐구 능력의 함양 그리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a, 2021b).

2. 고교학점제와 사회과교육과정의 변화

고교학점제의 추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과 과목 개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교육부, 2017).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특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는 2022년 특성화고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실질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

변화 요인	설명	대응 전략
사회 환경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 체계 구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초소양 강화 •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개념적 학습과 탐구 능력 함양
학습자	학령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시행
교육환경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양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적인 수업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흥미와 책임감을 갖고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2021c).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선택 과목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다양하지 않아 학생들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맞춤형 이수 경로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의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의 체계는 공통-선택(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조정되면서 선택과목의 숫자가 대폭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고려하여 그동안 특목고를 중심으로 개설되던 전문교과에 속하는 과목들이 대거 선택 과목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반면 수능과목에 해당하는 일반선택 과목의 수는 사회과 영역별 한 과목으로 축소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지리영역은 5개의 선택과목으로 재편되었다(표 2). 일반선택 과목인 ‘세계시민과 지리’가 수능 선택과목이 되었으며, 기존 한국지리는 ‘한국지리 탐구’로 과목명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일반선택 과목에서 진로선택 과목으로 변경되었다.

III. 한국지리 탐구 - 교과 내부의 요구

기존 고등학교 사회과에 ‘한국지리’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지리 탐구’가 완전히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과목의 성격이 변경되어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용과 성격을 변경해야 하고, 또 과목명에 ‘탐구’가 추가되어 과목의 성격이나 교수학습의 측면에서 탐

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기존의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변화의 요구나 불만이 높았던 것이 더 많이 변화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된다.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변화의 요구나 불만 사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작업 전 수행된 연구(박병기 외, 20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둔 시점에서 사회교과군(지리, 역사, 도덕, 역사)의 교육과정 구성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지리교육에서는 이경한 교수(전주교대)와 김대훈 박사(안산고잔고¹⁾)가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분석과 뿐만 아니라 지리교사들(N=263)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1.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교과교육학 측면의 분석

보고서(박병기 외, 2021)는 기존 한국 지리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성격과 내용구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표 3).

지리교육 성격의 측면에서는 초중고 교육과정을 포괄하는 지리과의 성격, 역량, 목적의 기술이 빈약하다는 것과 미래사회를 위한 지리과의 방향 설정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은 미래사회에서 지리과가 강점을 갖기 위해서는 지리지식 못지않게 지리적 기능을 강조하고, 이해를 넘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리적 질문을 던지고, 직접 답사와 지리 문헌과 통계, 지도, 인터넷을 통해 지리정보를 구하고,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리정보를 분석하고, 도표화와 지도화를 통해 분

표 2. 사회교과군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사 주제 탐구 정치 경제 법과 사회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 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지리영역의 과목

표 3. 국가 수준 지리교육과정의 문제점 - 교과교육학적 분석

구분	문제점	대안
지리교육과정의 성격 측면	미래사회를 위한 지리과의 방향 설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기능 강조 • 지식과 이해보다는 참여적 실천적 접근 강조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측면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이분법에 매몰된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통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의 절충 시도
	특정 공간 스케일에 고착화된 내용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습(local learning)의 복원 • 지역, 한국, 세계 스케일 간의 균형 • 한국지리 과목의 범위를 동아시아까지 확대
	단원 배열 원칙의 탄력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지리-인문지리-지역지리 순서의 유연한 적용
	모학문과 교과의 간극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지역지리, 신문화지리, 신경제지리의 연구 성과 반영

석 결과를 표현하는 지리적 기능을 성취기준 진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략>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지리교육과정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서적 접근보다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박병기 외, 2021, p.34).

지리과 연구진은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 4가지 문제점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지리교육과정이 계통지리와 지역지리의 이분법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지리교육과정이 계통지리와 지역지리 중 하나의 방법만 선택해야 하는 대립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지리교육과정 개발에서 이 두 접근 방법을 유연하게 절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둘째는 지리교육과정이 특정 공간 스케일에 고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리적 현상은 하나의 스케일에서 가시적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중 스케일의 매개와 관여를 통해 발생하고 펼쳐진다. 따라서, 지리학습 역시 다양한 스케일에서 실행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연구진은 고착화된 공간 스케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학습(local learning)을 부활하고, 특정 스케일에 고착하기 보다는 지역, 한국, 세계의 스케일 간 균형을 맞추고 스케일 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한국지리 과목의 공간스케일을 동아시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지리의 학습범위를 동아시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 연계와 의존성을 다층적이고 중층적인 스케일에서 접근하자는 의미이다. 셋째는 단원 배열 원칙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리교육과정은 ‘자연지리—인문지리—지역지리’의 순서로 단원을 배열해 왔으며, 이는 모학문인 지리학

의 전통적인 환경론, 지역론에 근거한 것으로 추론된다. 즉, 지역지리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종합이며, 자연지리는 인문지리의 토대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지리 단원이 뒤에 학습할 인문지리 단원의 토대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인문지리 단원보다 먼저 배치할 학문적 논리를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모학문의 성과를 교과가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근래 인문지리학에서는 신지역지리학, 신문화지리학, 신경제지리학 등이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고전적인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 지리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신문화지리학을 예로 들면서, 경관과 텍스트, 재현과 해석, 정체성과 상징,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역할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지리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박병기 외, 2021)는 지리교사 263명이 참여한 지리교육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사들은 총 35문항에 대해 응답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리 과목과 관련 있는 문항들의 결과만 포함하여,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및 내용구성의 측면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였다(표 4).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지리교사들은 현행 한국지리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이 높고, 변화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지리는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안되었던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표 4.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와 대안 제시

구분		내용
지리교육과정의 성격 측면		• 전반적인 개선 필요
		• 내용의 과감한 축소
		• 흥미와 생활 적합성 고려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측면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 지역조사 내용 추가 • GIS를 실제적으로 활용하기
	지형/기후환경과 인간생활	• 학문적 성격의 내용 감소 • 단원의 분량을 축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인문지리(거주공간의 변화,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변화와 다문화 공간)	• 지리적 사실이나 정보가 아닌 지리적 이해에 초점 • 고전적 이론보다는 한국의 실제적 사례에 초점
	기타 강조가 필요한 부분	• 지정학/지경학을 통한 동아시아와의 관계

의견이 고루 제시되었다. 설문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구체적인 코멘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한국지리는 그동안 가장 변화가 없었던 교육과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이 기존의 한국지리의 틀에 얽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많은 변화가 필요하므로 과목명, 내용체계 등에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생활과 윤리 과목은 기존 윤리과목에 혁신적인 변화였듯이 지리과에서도 창조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들은 고등학교 한국지리 과목의 내용과 양이 많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내용을 획기적인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생활 적합성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리는 과감히 내용을 축소해야 합니다. 사회문화와 생운은 2015개정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지리는 너무 세세한 범위까지 학습하여 학습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리도 학습량을 줄이고 시험출제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지리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4, 5단원 자원, 도시, 공업 쓸데없이 내용이 많고 깊어서 학생들이 싫어합니다.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또 자연지리, 인문지리, 여러 지역 다하려고 하지 마시다.”

“학문적 내용보다 삶 흥미와 접합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리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측면에서 설문 참여 교사들은 현행 한국지리를 구성하는 대단원별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단원의 경우 자신들의 지역(로컬)을 다루는 내용을 함께 구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또한 GIS의 실제적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리교사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우리 지역)’의 탐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55.9%), ‘찬성’(34.2%) 등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토 인식과 우리 지역을 함께 구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GIS를 활용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교과 초반부인 만큼 우리 지역 자체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지역지리 지식보다는 답사, 지도, 지리정보 수집, 분석 등 지리조사 방법을 강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국지리 첫 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국토 인식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면서도 정작 수능 출제는 비슷한 문항의 반복이고, 외워야 할 것만 많은 인상이 들어”) 제외하거나 순서를 변경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지형/기후환경과 인간생활 등 자연지리 부분은 교사들의 불만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다. 교사들은 한국지리의 자연지리 부분이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입장에서 학습의 효용을 느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거나 내용을 과감하게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형과 관련한 학습 내용이 너무 깊습니다. 지형과 기후 단원을 재구성해 한 단원으로 줄이고 되도록 우리의 현재 삶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소재 위주로 재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형과 기후 부분 내용 자체가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생소한 용어들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중도 포기하게 되는 지리 포기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형 단위 내용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2학년 때 배운 지형학의 내용이 현재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형단원에서 흥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좌절도 많이 합니다.”

“기후 학습 내용은 통계자료 중심에서 벗어나 삶과 더 연계시켜야 한다.”

“자연지리 내용을 학습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인구, 도시, 산업을 다루는 인문지리 단위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불만과 개선에 대한 요청이 나타났다. 인문지리에 대한 불만은 지리 교수학습에 대한 전통적인 불만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다. 즉, 지리적 사실과 정보만 다루고 있다거나 고전이론만 다루고 있어 현재의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인문지리에 대한 교사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디에 자동차 공장이 있고, 어디에 제철 공장이 있고 아직 까지도 이런걸 외워야 하는 한국지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이해에 더 중점을 두고,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개선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전형적인 산업 이외에 최신 경향과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과목이 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도시 구조에 기초한 일반론적인 도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농촌 읍면 등 도시의 규모별로 유형별로 그 특징에 대해 사례 도시를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나올 듯합니다.”

“기존의 고전 경제지리학 내용보다는 최근의 경제 및 산업 트렌드를 중심으로 소재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통계만 나열하는 내용은 빼고, 대신에 장소 개념, 문화지리 내용을 더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더불어, 일부 교사들은 현재 한국지리의 문제가 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능시험 문항의 문제로 보았다. 즉, 수능시험에서 등급 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나아가 지리적인 이해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지 못하는 문항이 수년간 출제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리 단위 자체의 변화보다는 5자원, 6인구 단위 시험 출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통계 데이터를 암기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리교사들은 “한국지리 교육과정의 개정보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변별력을 높인답시고 공업과 서비스 분야의 통계자료로 만든 그래프 문제들을 빼야 학생들이 지리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집니다.”라고 지리 수능 문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부 교사들은 “동아시아 스케일에서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몽골 등의 지역지리, 그리고 그곳과 우리와의 관계 및 지정학, 지형학 등을 주요 성취기준으로 신설했으면 합니다.” “한반도 - 동아시아 - 동남아시아 등의 연결 관계에 확장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기존의 대단원 체계 및 내용 외에도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동아시아 스케일의 지리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IV. 한국지리 탐구 - 개발과정, 개정의 방향, 내용체계

1. 한국지리 탐구 개발과정

고등학교 한국지리 탐구 개정 연구진은 지리 교과교육 전문가 1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지리 탐구의 교육과정 개발은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2021년 5월까지 진행된 1차 연구(“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규정하고, 성취기준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의 문제점을 현장교사와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폭넓게 파악하고, 대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연구기간 동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전체 연구진 워크숍(2회), 사회과 연구진 워크숍(3회), 지리과 연구진 워크숍(10회), 대학교수 자문(8회), 현장교사 자문회의(3회), 학회 이사회 검토(1회) 등의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쳤다. 더불어, 2021년 수행된 ‘포

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병기)에서 제시된 개정 방향과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지리 과목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2022년 7월부터 진행된 2차 연구(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를 통해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성취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평가 부분을 작성하였다. 2차 연구에서도 연구진, 외부 전문가, 현장교사 대상의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 대한지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지리학 및 지리교육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시안을 공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진 내부에서의 검토와 수정 절차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 협의회 교육과정 네트워크, 교육과정 핵심교원 연수, 교육과정 각론 조정팀 등 연구진 외부의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하였다.

2. 한국지리 탐구 개정의 방향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국지리’ 과목이 존재했기 때문에 신규 과목이라기보다는 기존 과목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반선택 과목에서 진로선택으로 과목의 성격이 변경되고, 과목명에 드러난 ‘탐구’를 강조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다. 무엇보다 기존 한국지리 과목에 대한 학교 현장의 불만과 변화의 요구가 많아 이러한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한국지리 탐구의 개정 방향 및 내용체계 개발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지리 탐구 개정의 방향은 크게 1) 쟁점과 이슈에 초점, 2) 지리탐구 강조, 3) 진로와 실생활 강조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지리 탐구는 쟁점과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기존 한국지리가 지표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종합을 목표로 설정하였다면,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국토와 지역의 쟁점과 이슈 혹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탐구하며, 나아가 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려 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지리 및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목표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5). 지리적 이슈와 쟁점에 주목하려는 의도는 일반적인 내용을 전부 다루지 않고, 현재 학생들의 삶과 관련 있고 중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이며, 이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둘째, 한국지리 탐구는 ‘탐구를 통한 지리학습’을 지향한다. 이때 지리탐구는 “지리적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근거를 찾아 답하고, 탐구과정의 적절성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탐구의 전체 과정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며, 국토 스케일과 학생들이 위치한 지역 스케일에서의 탐구, 그리고 공간정보 및 야외조사를 활용한 탐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아래는 각각을 설명하고 있는 한국지리 탐구 교육과정의 일부분이다.

“내용 전달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은 최소화하고, 성취기준의 주제 및 성격에 따라 개인별 또는 소집단별 탐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리탐구의 전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일상적 삶의 소재에 대해 지리적 질문을 던지는 능력, 질문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 자료를 적절하게 시각화하고 분석·해석하는 능력, 결과를 의사소통하고, 탐구의 과정을 성찰하는 능력 등을 함양하도록 한다.” [한국지리 탐구 - 교수학습]

“[12한탐04-03]은 우리나라 및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자

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와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의 ‘목표’ 기술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2022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탐구
한국지리 과목의 목표는 우리 국토의 <u>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u> 국토 공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u>지리적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u> 하고, 우리 삶의 터전을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지리적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의사 결정 능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다.	한국지리 탐구의 목표는 국토환경 및 지역이 당면한 <u>지리적 이슈와 쟁점에 관심을 갖고, 탐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u> 이를 통해 국토와 지역에 대한 지리적 이해, 이슈와 문제에 대한 탐구능력, 환경의 지속가능한 활용,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중시하는 태도를 함양하고자 한다.

연재해의 유형과 특징을 조사하고, 대책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들은 자연현상과 자연재해를 구분하고, 인간의 대응 측면에서 위험과 취약성의 개념을 통해 자연재해를 이해하며,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재해별 대응 방안을 찾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지리 탐구 - 성취기준 해설 “인구구조, 인구가동, 1인 가구, 노령화 지수, 다문화 인구 등 인구 변화 관련 주제는 통계자료나 국토통계지도, 통계지리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함으로써 스스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구 데이터를 통계 프로그램(예, 엑셀)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으며, 데이터의 효과적인 시각화나 공공 빅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기술이나 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리 탐구 - 성취기준 해설]

“야외조사를 통해 학습한다면, 도시의 생태하천 복원, 도시 녹지 조성이나 훼손에 따른 환경 변화, 해안침식과 침식 방지 시설의 설치에 따른 해안선의 변화,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해안지역 경관 및 토지이용의 변화, 해안사구나 갯벌의 보전 및 복원, 하천의 직강화와 배수시설 설치 등을 주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야외에서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야외조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app)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지리 탐구 - 성취기준 해설]

셋째, 한국지리 탐구는 학습의 실생활 연계와 진로교육을 강조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목표로 하며, 이때 역량교육은 “교과를 삶과 연계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과의 지식,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통합된 교과 역량을 습득하여 그것이 교과 맥락을 넘어 실생활의 다양한 맥락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한혜정, 2022, p.22)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습의 결과는 시험이 아닌 실생활의 맥락에서 발휘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 또한 실생활과 연결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온정덕, 2022). 기존 한국지리 과목의 내용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받아들여, 한국지리 탐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소재를 찾고 학습의 유용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이 학습결과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느끼고,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을 실세계의 주요 이슈와 국가, 지역의 과제

와 연결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기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백서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반영하고자 했다(예,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아래는 한국지리 탐구의 성격에 제시된 진로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지리 탐구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저출생·고령화, 국가균형발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역변화, 모빌리티와 플랫폼 경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자연재해와 대응,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 통일과 동아시아 지정학 등 국토환경 및 지역이 당면한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탐구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리학, 지역학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경영, 행정 등 사회과학과 환경과학, 건축, 도시 계획, 에너지와 방재 분야의 진로를 대비할 수 있다.” [한국지리 탐구 - 성격]

3.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체계

고등학교 사회과 진로선택 과목인 한국지리 탐구는 총 5개 대단원 및 15개의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8개 대단원, 28개 성취기준)에 비해 약 46% 정도 축소된 수준이다.

한국지리 과목의 성취기준 축소는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지리 과목은 대체로 모학문인 지리학의 체계를 따라 계통지리 위주로 구성되어 왔다. 실제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지리 과목의 대단원 명칭을 보면 지형학(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학(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도시지리(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경제지리(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지리(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등 지리학의 분과학문을 통해 한국지리를 학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성취기준의 수를 일괄적으로 축소할 경우 분과학문적인 틀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학습량의 축소는 체감하기 어렵고, 필요한 설명은 줄어들게 되어 오히려 불친절한 교과서가 되기 쉽다. 따라서 계통지리의 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 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지리 탐구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내용 선정 및 구성의 초점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과 삶의 모습은 다른 국가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변화하고 발전해왔으며, 현재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당면해 있다. 따라서 학습 내용을 국토의 자연환경과 지역(인구, 도시)의 측면으로 구분하고, ‘변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들을 탐구하도록 하였다.

한국지리 탐구는 국토를 포함한 다양한 스케일의 지역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강조한다. 한국지리 탐구에서 다루는 지역 스케일은 한반도뿐 아니라 학습자의 생활공간과 한반도 주변의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가 속한 지역, 국가, 세계와의 연계성 및 국토공간 변화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표 6).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지리 탐구의 내용은

스케일을 적극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한국지리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탐구하더라도 스케일(Scale)에 따라 탐구방법이 달라지고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자연지리 내용이 인문지리 내용을 배우는데 선수학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생들이 대체로 어려워하지 않는 인문지리 단원(3단원)을 자연지리 단원(4단원)에 앞서 배치하였다.

4. 한국지리 탐구의 단원 구성

앞서 기술한 개정 방향 및 내용체계를 기준으로 한국지리 탐구는 최종적으로 5개의 대단원과 15개의 성취기준으로 개발되었다. 단원 설계의 근간이 된 단원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는 표 7과 같다.

1단원은 탐구가 무엇인지 알고 이를 바탕으로 지리탐

표 6. 스케일을 반영한 한국지리 탐구의 구성

선정 기준	스케일	로컬	지역	국가	동아시아
지리탐구		(1) 공간정보와 지리탐구			
실제성(실생활)		(2) 생활 속 지리탐구			
변화와 지속가능성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4)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			
지정학					(5)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표 7. 한국지리 탐구의 단원별 주요 내용

단원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
1. 공간정보와 지리탐구	지리탐구의 방법을 알고 연습한다. 특히, 지리정보기술 및 야외조사를 활용한 탐구방법을 익힌다. 2·5단원과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다.	· 지리적 질문과 지리탐구 · 데이터, 야외조사와 지리정보기술
2. 생활 속 지리탐구	음식, 핫플레이스, 모빌리티 등 일상생활 속 상품의 소비를 통해 자신과 다른 지역의 관계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기술, 미디어의 역할을 탐구한다.	· 식품과 상품사슬 · 관광과 여가, 장소 정체성과 장소마케팅 · 모빌리티와 공유서비스
3. 국토의 변화와 균형 발전 탐구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지역들(수도권 vs. 중소도시 vs. 농촌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평가한다.	· 저출생과 고령화,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 산업구조의 전환과 지역 변화 ·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4.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	도시화, 관광, 농업 등 개발에 따른 국토환경의 변화와 자연재해 이슈를 조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제안한다.	· 세계유산과 자연경관 · 환경의 개발과 변화, 보전 · 자연재해, 재난위험 경감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5. 동아시아 갈등과 공존 탐구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 대한 위치, 경계, 영역, 관계를 고려한 지정학적 이해를 통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쟁점들을 지리적으로 해석한다.	· 북한의 당면과제와 남북협력 · 경계와 영역, 동아시아 지정학과 평화·공존

구를 설계해 보고, 지리정보기술, 야외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리탐구를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지리탐구는 지리적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물이나 현상을 지리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은 지리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 많다. 이를 위해 지리적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교육과정 문서에 안내하고 있다. “학생들은 탐구하려는 현상에 대해 ‘그 현상은 어디인가?’ ‘왜 거기일까?’ ‘그 현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현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 ‘나는 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1단원에서 이해하고 경험한 내용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뒤이어 제시되는 내용 영역과 연결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2단원은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음식, 핫플레이스, 모빌리티를 통해 식품과 장소, 관광과 지역, 모빌리티와 공간의 변화를 탐구하게 된다. 2단원의 핵심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호기심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리 탐구는 전반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를 배치함으로써 지리과목에 대한 흥미 나아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현상과 변화들을 지리적으로 바라보고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례들을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와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한국지리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경관과 텍스트, 재현과 해석 등 신문화지리 내용을 포함하였다.

3·4단원은 ‘변화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맞춰 국토의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단원이다. ‘국토의 변화와 공간 불평등 탐구’(3단원)에서는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탐구한다면,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4단원)에서는 인간에 의한 국토의 자연환경 이용과 지표의 변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방식이다.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에 속한 계통지리 과목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기보다는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주제와 이슈를(예, 저출생과 고령화, 외국인 이주자와 다문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산업구조의 전

환과 지역 변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환경의 개발과 변화, 보전 등) 선정해 학습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고자 했다. 자연지리 단원으로 볼 수 있는 ‘환경과 지속가능성 탐구’(4단원)에서도 지형의 형성과정 보다는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발(세계유산), 개발의 결과에 따른 지역의 변화 조사(하천과 해안지역의 개발과 변화, 환경조사),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자연재해와 대응), 지속가능한 방식의 환경 이용과 정책(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등 학생들이 실생활과 연관 지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다.

3·4단원은 한국지리 탐구 과목의 뼈대를 구성하는 만큼 고등학교 학기 운영도 함께 고려되었다. 연구진은 1·3단원을 중간시험 전까지 4·5단원을 중간시험 이후로 설정하였으며, 3단원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제안과 평가를 중간 프로젝트로, 4단원의 개발에 의한 지표환경(산지, 하천, 혹은 해안지역)의 변화를 야외조사 및 항공사진 분석 중심의 기말 과제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5단원은 다른 단원에 비해 지역의 스케일이 가장 넓은 뿐 아니라 북한과 같이 탐구를 위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지역을 포함한 특징이 있다. 북한이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리정보를 학습하거나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이야기하는 대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슈들(예,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관련 쟁점, 독도 및 동해 지명과 관련한 일본과의 영역 갈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한 서해안의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의 경제협력 이슈 등)에 대해 지리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강조하며,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주도하여 근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정부 및 국제기구,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진, 항공사진, 위성영상을 활용”)을 제안하였다.

V. 마무리 – 한국지리 탐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

2025년부터 한국지리 과목은 한국지리 탐구로 가르치게 된다. 그동안 한국지리는 수능 과목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수능과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학교에서 개설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도 했다. 이제 한국지리 (탐구)는 수능과목이라는 안전장치 혹은 굴레를 벗어나 선택 과목으로서 과목 콘텐츠로만 학생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선결과제를 파악하였다.

먼저, 기존의 한국지리 그리고 가르치던 방법과 과감한 이별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목명은 매우 유사하지만 새로운 과목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은 많이 바뀌었으며, 가르치는 방법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리 과목이 고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져 오면서 쌓여져온 수업자료와 콘텐츠는 교사들에게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변화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탐구를 위해 개발된 과목을 탐구적 접근으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다면 실패는 불가피할 것이다.

한국지리 탐구를 과목의 성격에 맞게 가르치기 위해 수업자료의 개발과 함께 교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지리 탐구는 탐구로 배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지리 탐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의 성취기준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취기준이나 주제를 학생들이 탐구할 질문으로 변환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탐구 질문은 하나의 좋고, 모범이 되는 탐구질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특성, 학생들의 일상생활 경험이나 호기심을 통합할” 수 있는 질문을 교사가 만들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

1) 현재 부천교육청 장학사

참고문헌

교육부, 2017,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부, 2021a,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안).

교육부, 2021b,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2021c,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2022, 2022년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 자료집.

박병기·모경환·박형준·김민재·강수정·이경한·김대훈·김정인·문순창·김은미, 2021,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 지향적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윤정덕,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2022 개정 총론 주요사항 마련을 위한 연구 공청회 자료집, 69-84.

한혜정, 2022,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구성, 2022년 교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연구진 2차 합동 워크숍, 교육부, 19-48.

접 수 일 : 2023. 05. 01

게재확정일 : 2023. 05. 16

교신: 이종원, 0376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jongwonlee@ewha.ac.kr, 02-3277-2642)

Correspondence: Jongwon Lee, jongwonlee@ewha.ac.kr